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4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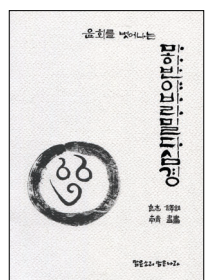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여기깨어있기	법륜	정토	6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illon Books	담앤북스
2	인생수업	법륜	휴	7	백일법문 세트 (전3권)	성철	장경각
3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8	남승 금강경 의	신근영	북드라마
4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9	물입이 시작이다	스티븐 스나이더	불광출판사
5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회 신행수기 공보 김문영	모래나무	10	춘성	김광식	중도



반야심경, 고통벗어난 '진여세계' 안내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양지 역은이 | 남청 선사화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 5천원



반야심경은 불교 의식 때 빠지지 않고 독송 된다. 그래서 불자가 아니더라도 또 그 의미는 모르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만 반야심경

서 가르쳐 주는 핵심은 무엇일까. 반야심경은 수백 년에 걸쳐서 편찬된 반야경전의 중심 사상인 공(空)을 260자로 담은 경전이다. 불교의 모든 사상인 공을 담은 경전인 만큼 예로부터 많은 선지식들에 의해 번역됐다. 이번 책은 양지 스님이 새로운 형태로 펴내 눈길을 끈다. 현장, 대전, 혜충, 제바, 원충 등 당대 최고 선지식의 번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및 해설돼 있다는 점이다. 불교의 정수인 기본 경전인 만큼, 반야심경은 마음이 병든 현대 풍토의 치유에 적합하며 양지 스님이 앞서 출간한 선가귀감, 천수경과 함께 시리즈로 기획되어 일반인들이 매일 접하는 기본 경전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깨우쳐 삶의 고통을 덜어내고 행복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회를 벗어나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은 평소 뜻도 정확히 모른 채 진언만 독송하던 불자들에게는 길잡이와 같으며 삶의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외부 조건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같은 불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라는 뜻이다. 자신이 속박해 탈해 진여의 지혜로 자유자재한 전문가를 관자재보살이라고 하고, 또 자신이 세간의 망념을 관조하여 자비를 실천하는 전문가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은 범어로 같은 말이고 번역을 해도 같은 것으로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관조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세음보살과 종교적인 관세음보살이 공존하는 것은 근기가 낮은 이를 위해 조 사들께서 자비의 방편으로 건설한 것일 뿐이라며 이어서 대전, 혜충, 부용선사도 해, 제바 등의 번역을 소개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관자재보살에 대해 이상에서 설하는 것은 관자재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것 보다,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두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설하고 있다. 즉 보살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모두가 관자재보살이 되는 방법을 설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자신의 망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무위진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자신이 공(空)으로 관조(觀照)한다는 것까지도 초월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식으로 관조하게 되면 망념이 되어 윤회 고(苦)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지식을 지혜로 전환해 물질적의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궁극적으로 불교서 지향하는 관자재보살을 불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선지식들이 바랐던 진정한 관자재보살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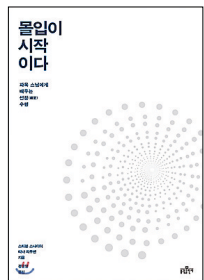
저자는 이어서 반야바라밀다를 간절히 행하는 행심반야바라밀다시(行深般若波羅蜜多時)에 대해 진여 지혜로 행(行)하는 것을 행심(行深)이라 하고, 이를 통해 오온(五蘊)이 공(空)하게 된다고 풀이했다. 덧 붙여 이처럼 간절히 반야바라밀을 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소승의 반야가 아닌 대승의 반야지혜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궁극적 지향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승(小乘)이란 불법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잘 살아도 현자(賢者)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승(大乘)은 부처나 조사(祖師)가 되어 진여의 지혜로 물질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성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몰입 근육 만들자... 번뇌 처리 시스템 갖춰져

몰입이 시작이다

스티븐 스나이더, 티나 라무젠 지음 | 정경영 옮김
불광 펴냄 | 1만 4천원



일상생활서 일, 공부, 운동 등을 할 때 마음이 산란해 집중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몰입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해, 어려운 난관을 쉽게 헤쳐 나가며 삶의 만족도도 최고로 끌어올린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어떤 수행을 하든 잡념이 많고 주의가 흐트러지면, 힘만 들고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선정(禪定)', 즉 완전한 몰입에 들었을 때 수행의 진전을 빠르게 가져와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행에 있어서도 몰입은 수행의 기본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600여 년 동안, 불교 수행의 지도자들은 '선정'이라 불리는 몰입집중의 귀중한 명상적 실천을 공들여서 보존해왔다. 선정은 마음이 주의의 기울이는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어 고요와 평화를 이룬 명상 상태다. 몰입집중은 알아차림의 정화와 순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고, 평범한 일상의 지각력을 넘어서는 영역으로의 접근이다. 게다가

이 강도 높은 주의력은 위빠사나 수행에 적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남방 상좌부불교의 전통수행법은 크게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로 나뉜다. 사마타는 마음의 고요와 고도의 집중을 꾀하는 선정 수행이며, 위빠사나는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에 대한 통찰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수행이다. 그러므로 선정을 닦는 사마타 수행의 기반이 확고해야, 지혜를 증득하는 위빠사나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책은 서양인의 시선을 통한 선정 수행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미얀마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지도자'라는 칭송을 받는 파옥 사야도의 개인적이고 강도 높은 지도 아래, 사마타의 단계(여덟 가지 선정과 연계된 수행들)를 온전히 성취한 두 미국인 수행자들의 체험을 담았다.

저자 스티븐 스나이더와 티나 라무젠은 파옥 사야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사마타 수행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수행구조에 있어서는 상좌부 불교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수행자를 배려하는 유연함이 스며들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하는 선정 수행은 쉽고 친절하다.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묘사되는 설명이기에 진솔하면서도 무겁지 않

다. 또한 선정 수행 중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집중이라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혜를 향한 선정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붓다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 사마타 수행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수행의 기본 토대로서 사마타와 선정 수행을 지속하였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선정에 들었다."

파옥 스님에게 배우는 선정 체험기
선정수행, 자기마음 강화 훈련
최상 깨달음 얻는 붓다 수행법

이 책은 호흡에 대한 주의로 시작하는 사마타의 기초 입문단계에서부터 위빠사나 수행의 관문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마타 수행의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서양인 재가 수행자인 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소화한 내용들이 세심하게 배어있어, 수행 초보자에게 곧바로 적용되게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다루고 있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괴로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매우 적

합한 책이다. 선정 수행은 마음을 투명하게 정화시키는 자기 강화 훈련이다.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몰입의 근육이 만들어지면 번뇌를 처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게 된다. 이는 건전한 생활습관을 지닌 것과 같다. 평상시 마음이 내가 원치 않는 대상으로 갔을 때 쉽게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갈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명료한 선정의 힘으로 언제든지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수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어떤 수행을 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정 수행을 권해본다. 산란하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정정한 마음을 개발시켜,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선정 수행에서 얻는 몰입의 힘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격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함을 유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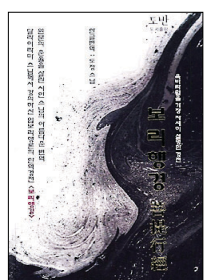
또한 선정 수행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붓다의 수행법이다. 만약 붓다를 삶의 실제적 역할 모델로 삼는다면, 붓다가 경험한 수행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길 바란다.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 길에 들어서면 많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육바라밀 경전인 <보리행경> 시적 운율 살려 번역

보리행경

도정 스님 지음 | 도반 펴냄 | 1만 1천원



<누워서 피는 꽃>을 출간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시인 도정 스님이 육바라밀의 경전인 <보리행경>을 출간했다. <보리행경>의 티베트본은 <입보리행론>이라고

하며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사람들을 위한 법문에서 교재로 사용해 유명해진 책이다. 처음에 <금강경>을 강의하려 했다가 한국 불교에 <보리행경>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교재를 바꾸었다는 일화가 있다. 티베트에서는 이 <보리행경>을 종파에 상관없이 모두 독송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다.

한역 <보리행경>의 티베트 대장경 이름은 <입보리행론>이며, 한역과 티베트역 두 가지 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각각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다만, 티베트역의 <입보리행론>이 한글로 번역돼 현재 유통됐으나, 한역 <보리행경>의 광활한 한 글 번역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렇다면 티베트본 <입보리행론>이 이미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구태여 한역 <보리행경>을 다시 한글로 번역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티베트역본 <입보리행론>과 한역본

<보리행경> 사이 번역의 거리감이다.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똑같이 번역한 한역 <보리행경>과 티베트역 <입보리행론>은 전문이 계속으로 이루어진 논서다. 그러나 티베트본 <입보리행론> 한글 번역에 있어 한역의 <보리행경>에 나타난 계승(偈頌)에 비해 운율과 언어의 함축미와 시로서의 맛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문장 구성에 있어 완성미가 결여돼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해석된 경우가 많다. 반면, 한역 <보리행경>은 7언4구와 5언4구의 계승인 시적 형식을 엄격히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이 티베트본 <입보리행론>과 대부분 상이해 새로운 <보리행경> 번역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상황이었다.

한역 <보리행경>을 한글로 번역하기에 앞

서 저자는 한글번역본 <입보리행론>과 한역 <보리행경>을 같이 펴놓고 비교했다. 같은 경전인 두 개 언어로 이루어진 경전 내용의 상이함에 저자는 놀랐다. 한역본 <보리행경>에는 <입보리행론>서 빠진 2품과 3품을 빼면 두 권의 모든 계승의 숫자는 맞지만 그 내용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전 속 계승의 우릴말 해석은 개괄적인 면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거의 대부분 서로 맞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번역에 있어 5언4구의 계승은 시적 형식을 살렸지만 7언4구는 평서문으로 해석했다. 계승은 시(詩) 운율을 살린 글이다. 그래서 그 문장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시인인 도정 스님은 실제 번역에서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했다.

김주일 기자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9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전문염송 제 2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문염송(禪問答頌), 전 30권 중 27권 출간! 파릉, 향림, 동산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전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승하여 공안 탐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번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번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기별>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 (2개월)
 - 송주: 도량석, 종송
 - 예경: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관공: 삼보통칭, 상단 중단 관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 (4개월)
 - 시련, 삼신이온(매불이온),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정, 시왕도정,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 (6개월)
 - 바 라 춤: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오공양, 유원송, 요점작법
 - 사 물: 태정, 북, 광시, 호적(대평소), 전통의식타법, 특 강: 종사이온,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제의식 등
- 강 주: 석범은 스님
-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초급과정: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 중급: 고급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입학자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 (북성리 1095) 대한불교영남총회총본사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접수기간: 상시모집
- 문의처: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전”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난방필름 전기판필 대비 최대 30% 절감 ↓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가스, 기름, 전기, 화물,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입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호기법 인증 받았습니다

ISO 9001:2008 인증업체 /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경기도 수원시 정안로 61(영화동)

강북: 010-9298-9608
의성: 010-6610-2337
의산: 010-6294-6126
성주: 010-3583-7138
칠환: 010-3018-1110
영주: 010-9183-9729

경남: 010-5097-08291
부산: 010-4597-5577
서산: 010-7301-5854
평창: 010-6433-8612
수원: 010-5211-7260